'코로나19' 여파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든 26일 서귀포지역 대표적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천지연(시잔 왼쪽)·천제연폭포 주차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여 주고있다. 강희만기자

서귀포지역 공영관광지 5곳 관광객 '뚝'

코로나19 등 여파로 한달 새 방문객 32% 줄어
찾는 이 없어 영업 포기하거나 자체 휴업까지
사설관광지는 관광객 감소 피해 체감폭 더 커

"최근 관광객 발길이 줄어 하루 2만원도 벌기 힘들어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앞날이 걱정이네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들자 서귀포시 지역 관광업계가 전례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25일 서귀포시 정방폭포. 평소 때 같으면 관광객들로 붐볐던 곳이지만, 이날 정방폭포에는 10여명도 채 안되는 인원이 마스크를 쓴 채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구경하고 있었다. 또 관광객들이 타고 나온 차량으로 채워졌던 정방폭포 주차장은 텅 비어 있다시피 했고, 관광지 주변에는 손님이 줄자 영업을 포기하고 자체 휴업에 들어간 토산품 판매점도 눈에 띄었다.

정방폭포 인근에서 토산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25년 넘게 이곳에서 장사하면서 요즘처럼 관광객이 없었던 적은 처음"이라며 "비수기지만 하루에 최소 1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려야 유지비가 나오는데, 요즘은 2만원도 벌기 힘든 실정"이라고 했다. 같은 날 천지연폭포, 산방산 등 서귀포지역 주요 관광지에도 주차장 면수 대비 절반 가량이 비어있는 등 상황은 비슷했다.

특히 서귀포시 공영관광지 외에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관광지의 경우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체감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서귀포 지역에서 사설 관광지를 운영하는 A 테마파크 대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방문객이 30~40% 가량 줄고 매출도 감소해 관광지 유지·운영이 힘든 실정"이라며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안 심리가 해소되면 관광객들의 발길이 자연스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 시기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간 서귀포시 지역 공영관광지(천지연·정방·천제연폭포 주상절리, 산방산·용머리해안, 감귤박물관) 방문객 수는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간 서귀포시 공영관광지 방문객 수는 21만5955명(내국인 20만234명·외국인 1만57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만8203명(내국인 30만738명·외국인 1만6465명)보다 32% 감소한 수치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도시재생뉴딜 월평마을 생활인프라 개선

골목길 보안등 교체로
안전한 밤길 환경 조성

서귀포시 월평마을에서 2021년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최근 골목길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가 마무리됐다.

시는 생활인프라 개선사업으로 3800만원을 투입해 골목길의 노후한 보안등 49개를 LED등으로 교체해 심야시간대 안전한 마을환경이 조성됐다고 26일 밝혔다.

월평마을은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선도지역으로, 민관이 협력해 2021년까지 4년동안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프라 개선사업은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개발공사를 시행자로 선정, 이번 노후등 교체를 시작으로 ▷마을길·돌담길 정비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조성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도시재생대학 ▷마을관리협동조합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주민협의체와 지속적으로 사업 방향을 결정 추진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서귀포시 성산읍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불법행위 단속도 병행

서귀포시 성산읍은 재해 예방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소하천의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을 조기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성산읍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상이변에 대응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과 공공재산 및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이뤄지며,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고수천 내 수목제거 및 퇴적토 준설 작업이 실시된다.

또 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되는 수목 및 퇴적토를 제거해 원활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하천내 무단경작, 공작물 설치, 성토, 골재 채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도 병행 실시될 계획이다.

강승오 성산읍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올레길 안내소 3곳 신축
관광정보 제공·쉼터 역할

제주시는 올레길 안내소 3개소를 신축하고 2개소는 기존 시설을 보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신축하는 안내소는 올레16코스(고내포구 맞은편), 올레19코스(조천항일기념관 맞은편), 올레20코스(해녀박물관 맞은편)에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올레14코스(저지예술정보화마을 내)와 올레15코스(한림항 내)는 기존 시설을 보수해 이용토록 할 예정이다.

올레길 안내소 설치 장소는 올레길 안내소와 지역 관광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올레코스 시점부(올레14, 15, 19, 20코스)와 분기점(올레16코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윤형기자

봉개매립장 3년 연장… 폐기물 처리 '숨통'

압축폐기물 처리… 7월부터는 복토작업 병행
제주시, 지난 25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체결

제주시 봉개동 북부광역관리센터 소각처리시설의 연장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현재 야적돼 있는 상태로 골머리를 앓던 폐기물 처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제주도 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지난 해 9월부터 수차례 협의 끝에 이달 말로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북부광역관리센터 소각처리시설을 3년간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25일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북부광역관리센터 소각처리시설은 오는 2023년 2월말까지 3년간 연장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재활용 선별 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과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을 적기에 소각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환경관리소 내에 야적돼 있는 압축폐기물은 4만8000t, 폐목재는 2만5000t에 달해 지속적으로 처리난과 환경오염 우려 등이 제기돼 왔다.

시는 연장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하루 120t(압축폐기물 60t, 폐목재 20t, 재활용 선별 잔재물 30t, 음식물 협잡물 10t)을 3년간 처리함으로써 야적된 폐기물 등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또 폐기물에 대한 소각처리를 진행하면서 오는 7월부터는 봉개매립장의 복토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원협의체와 협약에 따라 주민 숙원사업으로 봉개사우나의 대보수공사와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과 지역주민간의 양보와 타협으로 원활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도모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시민들로 구성된 클린환경감시단 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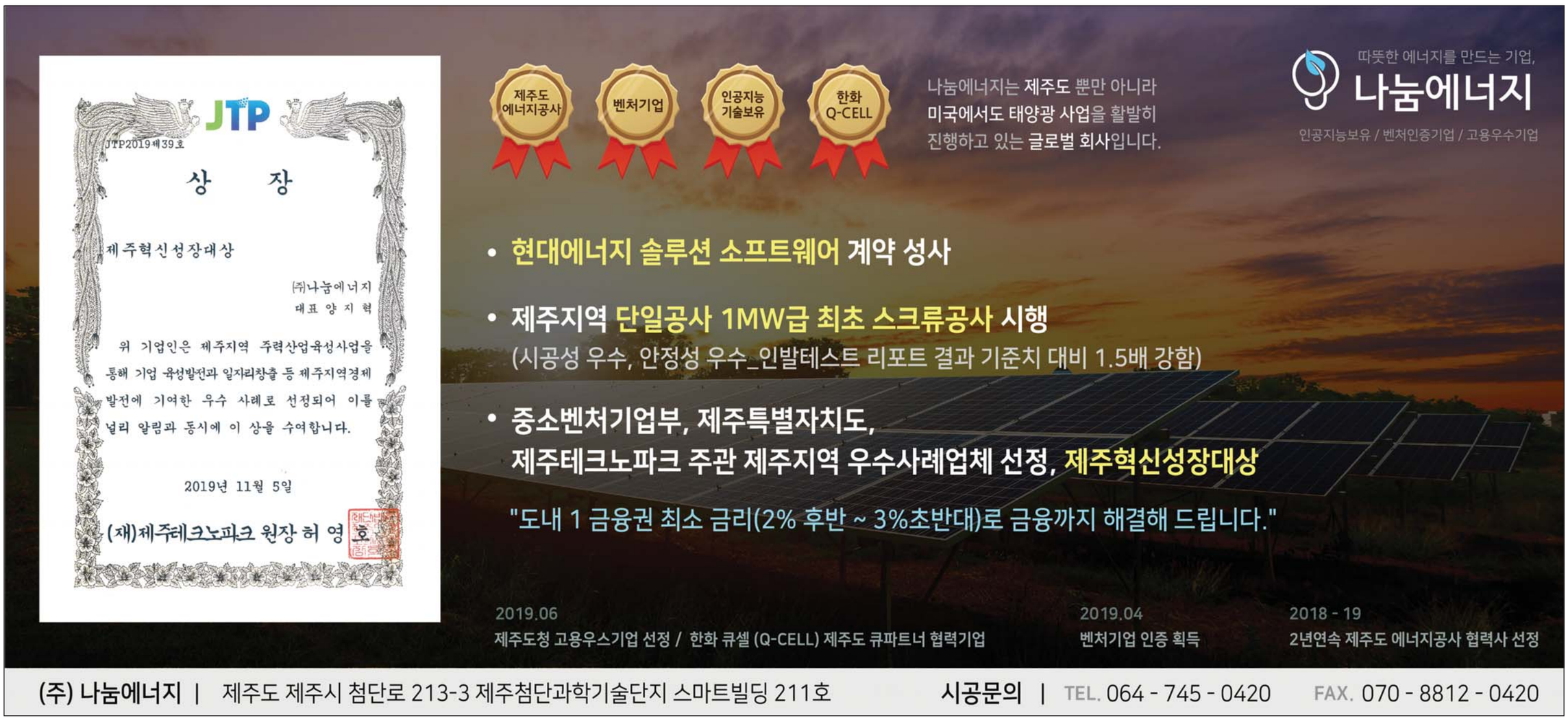
새마을부녀회원 311명 참여
'클린서귀포시' 만들기 앞장

서귀포시는 2020년 클린환경감시단(단장 현금영)을 구성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서귀포시 클린환경감시단은 '깨끗한 서귀포시 생활환경을 만들자'를 모토로 2007년 처음 발족했는데, 올해는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원 311명으로 구성돼 읍면동별로 클린서귀포시 만들기에 앞장서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클린하우스와 취약지역 청결 유지·환경정비,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계도, 쓰레기 분리배출을 홍보하게 된다. 또 환경나눔장터 운영,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캠페인도 벌인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229회의 환경감시단 활동을 통해 취약지역과 클린하우스 등 702곳에서 73t의 쓰레기를 정비했고, 쓰레기 불법투기와 요일별 배출제 위반행위 등 1502건을 계도했다. 또 3차례의 클린하우스 읍면동 교차점검을 통해 깨끗한 클린하우스 환경 조성에도 나섰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로 구성된 클린환경감시단이 환경파수꾼으로서 깨끗한 서귀포시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 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